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 등을 법사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채권 (AA-이상), 단기사채 및 기업어음(A2-이상)(유동화포함), 양도성예금 등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추가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듀레이션을 0.3년 내외 수준을 목표로 채권, 단기사채 및 기업어음 등에 투자하여 금리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573억 원

펀드유형 채권형

설정일

(운용펀드 : 2025년 01월 14일)

- 클래스C-F : 2025년 01월 14일

벤치마크 Call 100%

신탁업자 우리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2영업일	2영업일
17시 경과후	3영업일	3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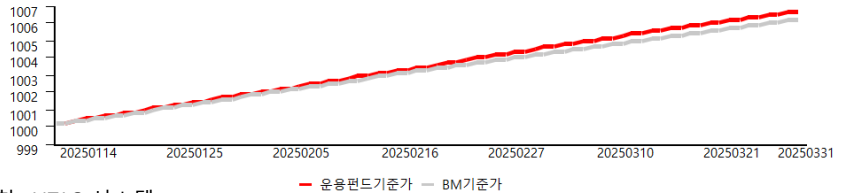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5등급(낮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이후
운용펀드	0.25%	-	-	-	-	-	-	0.67%
클래스C-F	0.25%	-	-	-	-	-	-	0.65%
벤치마크	0.23%	-	-	-	-	-	-	0.62%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 상기 집합투자기구는 설정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언급된 수익률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대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출처: AITAS 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5년 03월말 기준)

<전체>



<채권 종류별>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5년 03월말 기준 채권비중)

종목명	비중(%)	종목명	비중(%)
신한캐피탈491-1	8.8	프라이든제오차 20250307-33-2(단)	8.7
엔에이치농협캐피탈188-4	8.8	현대커머셜 20250110-90-2(단)	8.7
우리카드213-3(사)	8.8	신세계센트럴시티 20250311-48-2(단)	8.7
아이비케이캐피탈275-1	8.7	에스유제일차 20250131-89-3(단)	8.7
키움증권 20250221-45-3(단)	8.7	삼성증권 20250307-90-1(단)	8.7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C-F : 총 연 0.089% (판매 0.01%)
(공통사항)

운용 0.06%, 신탁 0.01%, 사무관리0.009%

선취수수료

Class A: 납입금액의 0.3% 이내
Class A-E: 납입금액의 0.15% 이내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전월 미국 채권시장은 관세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우려가 혼재되며 등락했습니다. 월초 2월 ISM 제조업지수가 예상치 하회와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 미10y 금리가 4.15%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나, 파월 의장의 경기침체 가능성 일축, 월 중순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 발표 이후 인플레이 경계심 재부각으로 4.3%까지 상승했습니다. 이후 3월 FOMC에서 QT 규모 축소 결정, 파월 의장의 도비쉬한 기자회견 등으로 미 국채금리는 다시 4.2%대로 하락했습니다. 국내 채권시장은 미 관세정책 영향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추경 논의 재개와 함께 2월 금통위의 사록에서 가계대출 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금통위 우려 확인 등 2분기 금리인하 기대 조정으로 국고채 금리가 전월대비 소폭 반등했습니다. 미 관세정책 및 현재 선포 일정 지연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월중 달러 환율 상승 압력 나타난 것 또한 채권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단기물 금리의 경우 2분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지속되며 전월 말 대비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동기간 동안 펀드는 3개월 이하 전자단기사채 및 여전채 중심으로 편입하였으며, RP 운용을 시장상황에 따라 조절 및 분기말 단기자금 환매 가능성으로 듀레이션 소폭 축소 대응하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연준은 3월 FOMC에서 올해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고 물가전망치는 상향 조정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해 심리부진과 실물경제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인플레이 수준은 높게 유지되며 당분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근 소매판매 둔화와 제조업 지수 약세가 확인되고 있어, 고용지표 둔화가 확인되면 금리 하락 요인이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는 추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확한 시점은 불확실한 상황인 가운데 국내 지표 둔화세가 확인되고 있고 4월초 본격적으로 시행될 미 관세정책 영향으로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아 한국은행의 추가 인하 기대가 지속될 점은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달러-원 환율 상승 흐름은 금리하락폭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결정 이후 추경 시기나 규모, 금융 시장 여건에 따라 금통위 전후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단기시장은 3월말 기준 3개월 A1 CP의 경우 2.97%, 여전채 및 회사채 AA- 3개월의 경우 약 3.00% 수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 둔화 우려 및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2분기 추가 인하 가능성으로 펀드의 듀레이션을 확대할 계획이며 금리 메리트 있는 여전채, 회사채 및 전자단기사채 등을 추가로 편입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